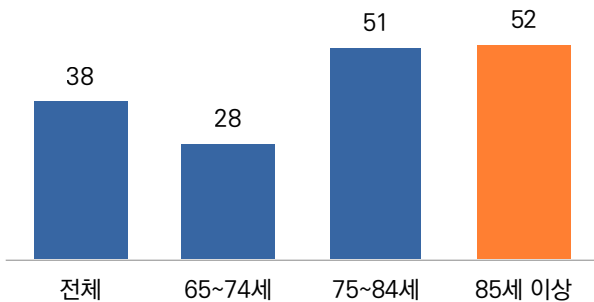




## [한국의 노인 빈곤율 실태] 같은 노인 가운데서도 젊은 노인과 초고령 노인간 소득격차 심각

- OECD가 2023년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,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\*은 40%로 평균(14%)보다 압도적으로 높다.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점차 하락 추세이지만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2021년 기준 전체 노인의 빈곤율은 38%이지만 75세를 전후로 빈곤율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, 75세 미만 노인의 빈곤율은 28%인 반면,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1~52%에 달했다. 새로 노인연령에 편입된 '젊은 노인'의 경우 과거 노인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, 이 연령대의 빈곤율 감소가 전체 노인의 빈곤율 하락을 이끈 것이다.

[그림] 연령대별 노인 빈곤율\* (2021년, 65세 이상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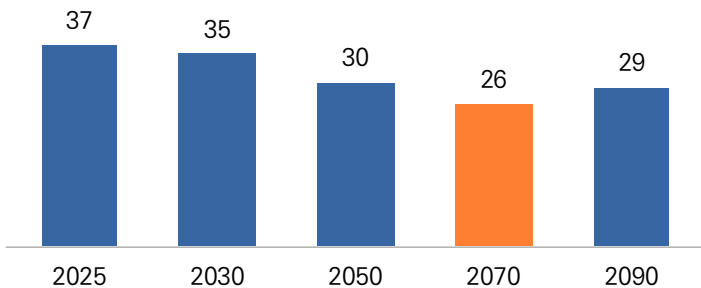
※출처: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, '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', 2024.08.11.  
(<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809128200530?input=1195m>)

\*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%에 못 미치는 비율

## 2070년, 노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빈곤할 것

-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기초연금 체계로 가정할 경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차츰 하락해 2070년 26%까지 내려온 뒤 2090년 29%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. 50여 년 후인 2070년에도 노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빈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.

[그림] 노인 빈곤율\* 예측 (65세 이상, %)



※출처: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, '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', 2024.08.11.  
(<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809128200530?input=1195m>)

\*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%에 못 미치는 비율